



공동체 소식



목주 기도 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10월 기도지향

- 현교정(돈보스코), 조경희(요안나 프란치스카) 가정
- 정석원(라파엘), 안혜진(임마콜라따) 가정

11월 기도지향은 안병환(발렌티노), 안현숙(크리스티나) 가정과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가정입니다.

목주 기도 성월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위하여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첫 첨례 신심미사

- 첫 목요일 미사(11/1) : 오전 10시
- 첫 금요일 미사(11/2) :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11/3) : 오전 10시, 9시부터 목주의 기도

구역장 회의

오늘(10/28)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28(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지하 교육관

주일학교 개학

우리 공동체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주일학교가 10월 14일 개학을 하였습니다. 교육분과 박희영 카타리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리, 문화, 인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21(일) 오전 9시부터**
- 장소 : 지하 교육관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10월 한 달 동안 구역미사에 참여 해 주신 모든 가정과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평협회장님, 전례분과장님, 구역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미주한인체육대회 기금마련 ‘일일식당’을 운영합니다. 티켓은 한장에 15불이며, 행사분과장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우리에게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	480	165, 502	27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정준구(파비아노)	안동현(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카타리나)
다음주일	안광민(야 고 보)	차호섭(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명은(안젤라)	류기범(요 셉)
	박혜정(가타리나)	신혜경(마 리 아)
다음주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예레미아)
	김명은(안 젤 라)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김주연(세실리아)
	김수연(율리안나), 안현숙(크리스티나)
다음주일	김경희(스콜라스티카) 한춘희(라파엘라), 이영민(엘리사벳)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감사합니다!!!

- <10월 21일>
- 미사참례 : 84명
 - 주일헌금 : \$386
 - 교 무 금 : \$42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 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30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거지의 청을 들어주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먼 거지는 예수님의 자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정성스럽게 미사를봉헌합니다.

성화해설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부산교구,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소재.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은 순교자들의 정신과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순교자와 교회사 관련 유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의해 부산에 설립되었다. 1977년 한국 순교성인 유해 26위를 안치한 순교자성당 건립을 시작으로 한국순교자기념관(현 박물관)과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 길 등을 조성하였다. 성당 뒤편에는 병인박해의 서술 아래 1868년 수영 장대에서 순교한 이정식을 포함한 부산 순교자 8위의 무덤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예레 31,7-9 <눈먼 이와 다리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화 답 송 :

주 님 게 서 과 연 저 희 에 게 큰 일 을 하 셧 기 에 -

저 희 는 못 견 디 게 - 기 - 빠 했 나 이 다 -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께서 돌려 보내실 제 저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저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 주님 사로잡힌 저희 거레를 남녘 땅 시냇물처럼 돌려 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 단 들고 올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제 2 독서 : 히브 5,1-6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 마르 10,46-52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쉐 마

“하느님의 자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걸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초기 신앙인들이 바치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으로 바꾸어주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초능력을 주는 하느님을 기대합니다. 인간이면 모두가 당연히 겪는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하느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하느님을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 주고, 미래를 위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하느님입니다. 인류역사가 끊임없이 상상한 하느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가 하느님 앞에 인간이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느님의 자비가 자기 안에 흘러들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모르고,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은 하느님에게 빌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실천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한 사람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이 소중한 나머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리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 믿음으로 너를 구하였다.’ 너의 간청이 간절하기에 고쳐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하였다.’ 는 말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느님이 자비롭고, 고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잘 바쳐서, 하느님의 축복을 얻어 잘 사는 데에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자비롭고, 고치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자기 안에 일하시게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이에게 또 언제나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자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지평(地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소경과 같이,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야 합니다. 그 자비를 부르고 실천하면, ‘너의 믿음으로 너를 살렸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마 중 물

감옥 속의 죄인

18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죄수마다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무죄를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고개를 굽이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감옥에 들어왔느냐?”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습니다, 폐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신하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고약한 죄인을 즉시 감옥에서 내보내도록 하여라.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죄인과 함께 갇혀 있으면 물들 염려가 있으니 당장 석방하도록 하여라.”

두려움과 경이로움은 믿음의 전조 역할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 품안에 자비로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절대자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진실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머 게시판

“하느님 말고 딴 사람 안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목사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용케 손을 뻗쳐 절벽 중간에 있는 소나무를 움켜쥐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목사님은 절벽 위에서 대고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염려 말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하느님이다!” 라는 대답이 들렸다.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하느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 주시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대로 하여라, 그 나무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목사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 “위에 하느님 말고 누구 딴사람 안 계세요?”

